

■ 월말 국내외 골프대회

최경주·위창수 등 4명  
내일 벨스챔피언십 출전

▲KPGA투어 개막전 토마토저축은행오픈(26일~29일·제주 제피로스골프장)  
KPGA 코리안투어는 26일 제주 제피로스골프장에서 나흘간 열릴 SBS코리안투어 토마토저축은행오픈을 시작으로 18개 대회를 치르는 2007년 시즌을 개막한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상금 총액이 79억원에 이르러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 규모의 프로투어로 자리를 잡았다.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 등 20대 '젊은 피' 열풍과 신용진(43) 등 30~40대 베테랑들의 정면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관도는 개막전인 토마토저축은행부터 뜨겁게 달구진다.

▲KPGA 엘씨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25일~27일·제주 크라운골프장)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전을 가진 KPGA 투어는 지난 21일 끝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 이어 시즌 세번째 대회인 엘씨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을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크라운골프장(파72·6천300야드)에서 치른다.

LPGA 코로나챔피언십 내일 개막  
이지영·김승희·김인경 등 참가

작년에 상금왕과 신인왕 등 타이틀이란 타이틀을 모조리 석권했던 신지애(19·하이마트)는 시즌 첫 우승과 함께 11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에 도전한다.

▲PGA 투어 EDS 바이런 벨스 챔피언십 26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에서 열리는 PGA 투어 EDS 바이런 벨스 챔피언십에는 최경주, 위창수, 나상욱, 앤서니 김 등 '코리안 4인방'이 모처럼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

필 미켈슨(미국) 등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 7명이 출전한다.

▲LPGA 투어 코로나챔피언십 아직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한 LPGA 투어 '코리안 시스템'은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멕시코 모델리아의 트레스 마리아스 레시덴티알골프장에서 26일 오후부터 4라운드 72홀 경기를 열리는 코로나챔피언십.

홀코스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벽이 두텁고 박세리(30·CJ), 김미현(30·KTF) 등 두 명의 에이스가 빠져지만 언제나 골치 아픈 이지영(22·하이마트)이 후배 김승희(19·휠라코리아), 안젤라 박(19), 김인경(19) 등을 이끌고 첫 우승의 승전보를 다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앗! 소림축구?” 미국 축구 카슨 시티의 루벤 바라하스가 24일 네바다주 카슨 시티의 밀스 파크에서 훈련 도중 골문을 향해 슈팅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궁도, 귀네슈 쿿대 꺾어라”

광주, 오늘 서울 제물 컨대회 3승 사냥 나서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좋아한다고...” ‘강팀 킬러’ 광주 상무가 쿿대 높은 FC서울의 ‘귀네슈’를 상대로 컵 대회 3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삼성 하우젠컵 2007 6라운드를 벌인다. 24일 현재 광주는 컵 대회 B조 2위(2승1무2패)를, 서울은 4승1무로 1위에 랭크돼 있다.

올 시즌 서울과 2차례 맞대결(정규리그 포함)을 벌인 광주는 컵 대회 첫 대결에선 ‘히딩크 스킴’인 0-5로 대패했으나, 지난 달 31일 정규리그에선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광주는 특히 이번 경기를 자존심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FC서울의 귀네슈 감독이 지난달 31일 무승부 직후 “상대팀이 우리와 무승부만 기록

해도 좋아한다”라는 발언으로 광주의 자존심을 구겨냈기 때문이다.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이번 대결에선 최전방에 ‘골 사냥꾼’ 남궁도(사진)가 배치된다. 남궁도는 2003년 시즌 개인 최다골(5골) 기록 이후 올 시즌 11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수문장’ 박동석을 중심으로 한태유, 구경현, 여효진, 김승용 등 FC서울 출신의 5명이 전정팀을 상대로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경고누적으로 주전 미드필더 이윤섭과 전광진이 결장되는 게 아쉽다.

광주에 맞서는 서울은 갑자기 빈곤해진 득점력이 걱정이다. 부상당한 박주영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정조국, 두두의 한 방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25일(수)

▲메이저리그(뉴욕Y-렘파베이)(08:00·Xports), <샌프란시스코-LA다저스>(11:00·Xports)

▲NBA 플레이오프(11:30·MBC ESPN)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13:00·KBS 1, KBSN Sports)

▲MBC골프투어 MC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 1R(14:00·MBC ESPN)

▲남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차전<울산모비스-부산KTF>(17:35·MBC)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삼성)(17:40·KBSN Sports), <롯데-SK>(18:30·MBC ESPN)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성남 일화-아틀레티크 유니아이트 FC)(18:50·Xports)

26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4강1차전<첼시-리버풀>(03:30·MBC ESPN)

오초아 새 ‘골프여제’

소렌스탐 제치고 랭킹 1위 올라



멕시코 스포츠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은 ‘골프 여왕’ 로레나 오초아(25·사진)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제위’를 마침내 빼앗았다.

24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오초아는 랭킹 포인트 12,84점으로 소렌스탐(12,70점)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4개월 동안 1위를 지켜오던 소렌스탐은 난생 처음 ‘2인자’로 밀려났다.

오초아는 지난해 소렌스탐이 5년 연속 독식해왔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 자리를 빼앗아온 데 이어 세계랭킹 1위까지 꿰차면서 새로운 ‘골프 여제’로 올라섰다.

카리 웹(호주)이 소렌스탐에 이어 3위를 지킨 가운데 한국 선수 가운데 장정(27·기업은행)이 9위를 차지해 유일하게 세계 10위에 포함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야마하 여성용 드라이버

‘인프레스 C’s 435’ 출시



야마하가 460D 드라이버에 이어 여성모델인 인프레스(inpress) C’s 435 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인프레스 C’s 435 드라이버는 헤드용 435cc로 대형화 하면서도 클럽 전체 무게를 261g으로 초경량화 해 임팩트 부정확하고 파워가 약한 여성골퍼들의 비거리 증대에 변화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발계수(COR) 0.816 이상 0.830이하의 고반발면적이 13.5cm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유효타점이 일반드라이버에 비해 5.2배 넓게 설계돼 압도적인 비거리와 미스샷의 실수를 최소화 했다.

또한 야마하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더블 스피드샤프트는 손잡이 아래 부분과 중간부분에 휨점(Bending Point)이 있어 이 두개의 휨점이 운동에너지를 증가시켜 평균 1m/s의 헤드스피드(평균 비거리 5야드 향상)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외에 Black의 윤기나는 Base에 선명한 백합무늬를 아로새겨 아름다움과 멘탈게임인 골프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 최강 광주벨인퍼컴 여자 볼링팀



제22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볼링대회

여자부 종합우승을 한 광주벨인퍼컴 선수단

◀ 왼쪽부터 강혜은, 김여진, 윤희여, 홍수연, 이나영, 손연희 선수.